

환황해시대 충남의 對중국 전략

박인성
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
2016. 9.28.

차례

1. 중국 굴기와 충남

- 충남의 신성장 동력
- 환황해경제권 ◀ 중국 굴기

2. 중국 환보하이지구의 중국내 위상

-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발흥과정
- 환보하이지구의 범위와 개황
- 환보하이지구의 발전전망과 과제

3. 충남의 현실과 과제

4. 충남형 對중국전략

- 환황해권 공간범위 설정
- 충남형 對중국 전략➡ 방안

1. 중국 굴기와 충남

• 충남의 신성장동력

- 1992년 8월, 한중수교 이후, 충남을 포함한 서해안 지역에 ‘서해안 시대’, ‘환황해경제권’, ‘동북아경제권’ 이란 용어가 화두로 대두
➔ ‘서해안 고속도로’ 건설 구상 논의 본격화
- 2001년 12월에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➔ 인천-목포간 서해안축 형성
- 신(新)발전동력 ➔ 서해안축의 중심에 위치 ➔ 산업, 물류, 관광 등 영역에 중국의 경제성장과 연계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기운 형성
- 최근 중국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“신상태” (新常态: New Normal)로 전환 ➔ 7% 이하의 중속성장과 질적 관리, 내수시장 육성 및 수입 대체기술개발 장려 ➔ 중간재와 부품의 대(對)중국 수출 특수에 의존해 온 충남경제에 위기

환황해경제권 ← 중국굴기

- ‘환황해경제권’ 동력의 발원지는 중국
 - 중국의 황하이(黃海)와 보하이(渤海), 그리고 우리 서해와 연접한 국가와 지역 간의 교역·교류를 촉진하면서 역내 소지역 시장권(市場圈) 또는 국지경제권(局地經濟圈) 형성을 촉진
 - 최근 15년간 우리 수출동향중 가장 주목되는 변화동향은 미국의 지위 하락과 중국의 부상.
 - 2000-2014년 기간중 수출액 점유비중이, 미국시장은 22%→ 12%로 대폭 감소.
 - 반면에 중국시장은 2000년 11%→ 2014년 25%로 급증
 - 아세안국가로의 수출액 점유비중은 2001년 11%→ 2014년 15%.(〈표 1〉 참조)

<표 1> 주요 국가별 교역비중 변화추이(2001-2014년)

| 연도 | 한국 ⇄ 미국 | | 한국 ⇄ 중국 | | 한국 ⇄ ASEAN | |
|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|----|------------|----|
| | 수입 | 수출 | 수입 | 수출 | 수입 | 수출 |
| 2000년 | 18 | 22 | 8 | 11 | 11 | 12 |
| 2002년 | 15 | 20 | 11 | 15 | 11 | 11 |
| 2004년 | 13 | 17 | 13 | 20 | 10 | 9 |
| 2006년 | 11 | 13 | 16 | 21 | 10 | 10 |
| 2008년 | 9 | 11 | 18 | 22 | 9 | 12 |
| 2010년 | 10 | 11 | 17 | 25 | 10 | 11 |
| 2011년 | 9 | 10 | 16 | 24 | 10 | 13 |
| 2012년 | 8 | 11 | 16 | 25 | 10 | 14 |
| 2013년 | 8 | 11 | 16 | 26 | 10 | 15 |
| 2014년 | 7 | 12 | 17 | 25 | 10 | 15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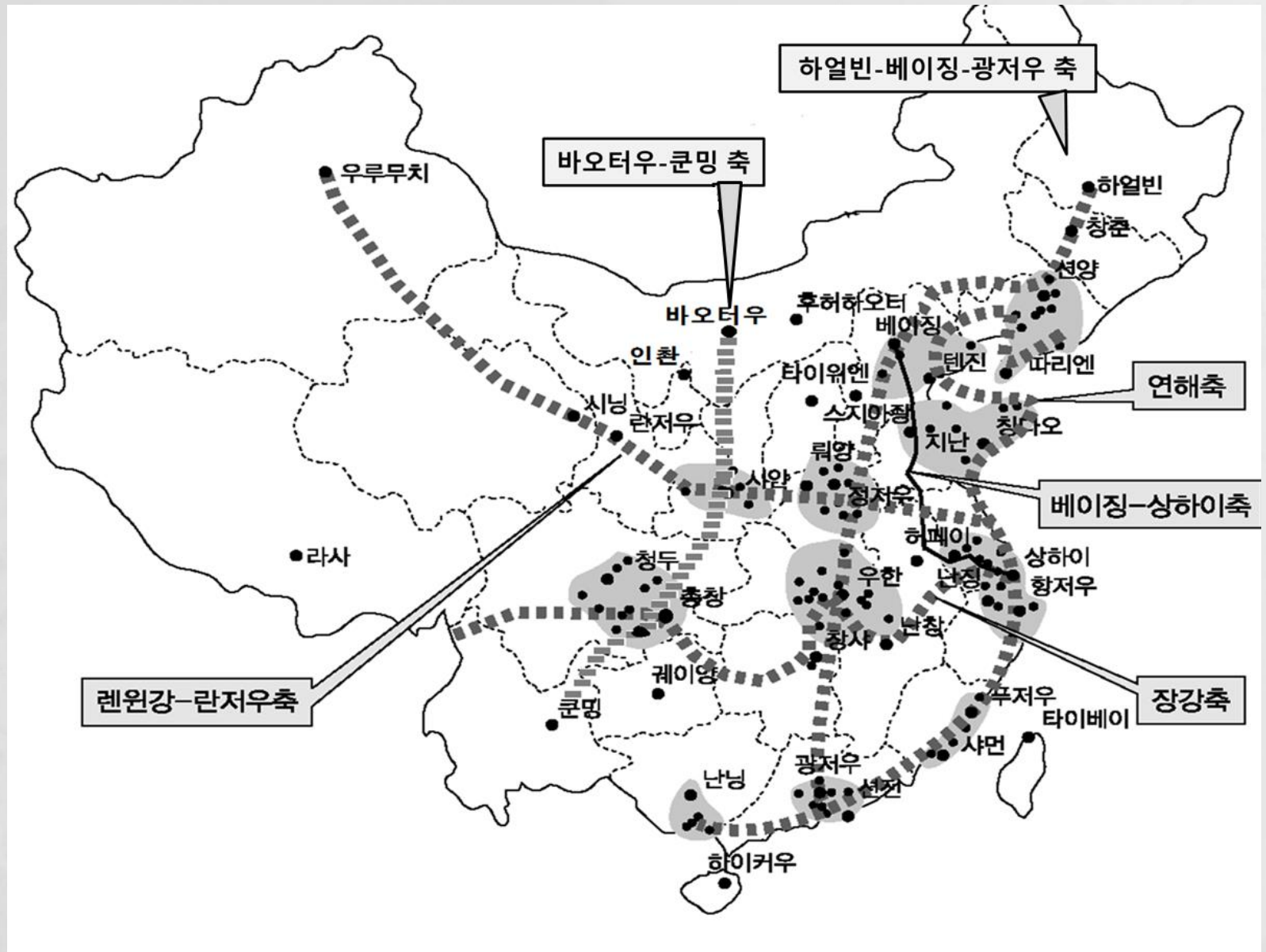
- 충남경제가 수도권과 정부축에의 의존성을 줄이고, 중국과의 직접 교역·교류를 통해서 서해안축 중심에서 새로운 발전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기회와 도전 공간 확대
 - 세계화(globalization)와 지방화(localization)추세에 부응하면서, 지방 층차(層次)에서 초국경(cross-border) 교류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사고 필요
- ‘환황해경제권’의 형성과 발전에 따라 형성되어 흘러오는 ‘외부동력’을 활용해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
 - 기후변화, 환경, 신(재생)에너지,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발전, 그리고, 3농(농업, 농촌, 농민),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과 같은 상향식 주민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와 혁신 흐름과 어떻게 연결하고 조율해 나갈 것인가?
 - 기존의 국민경제 안의 지방경제라는 틀을 깨고...

2. 중국 환보하이지구의 중국내 위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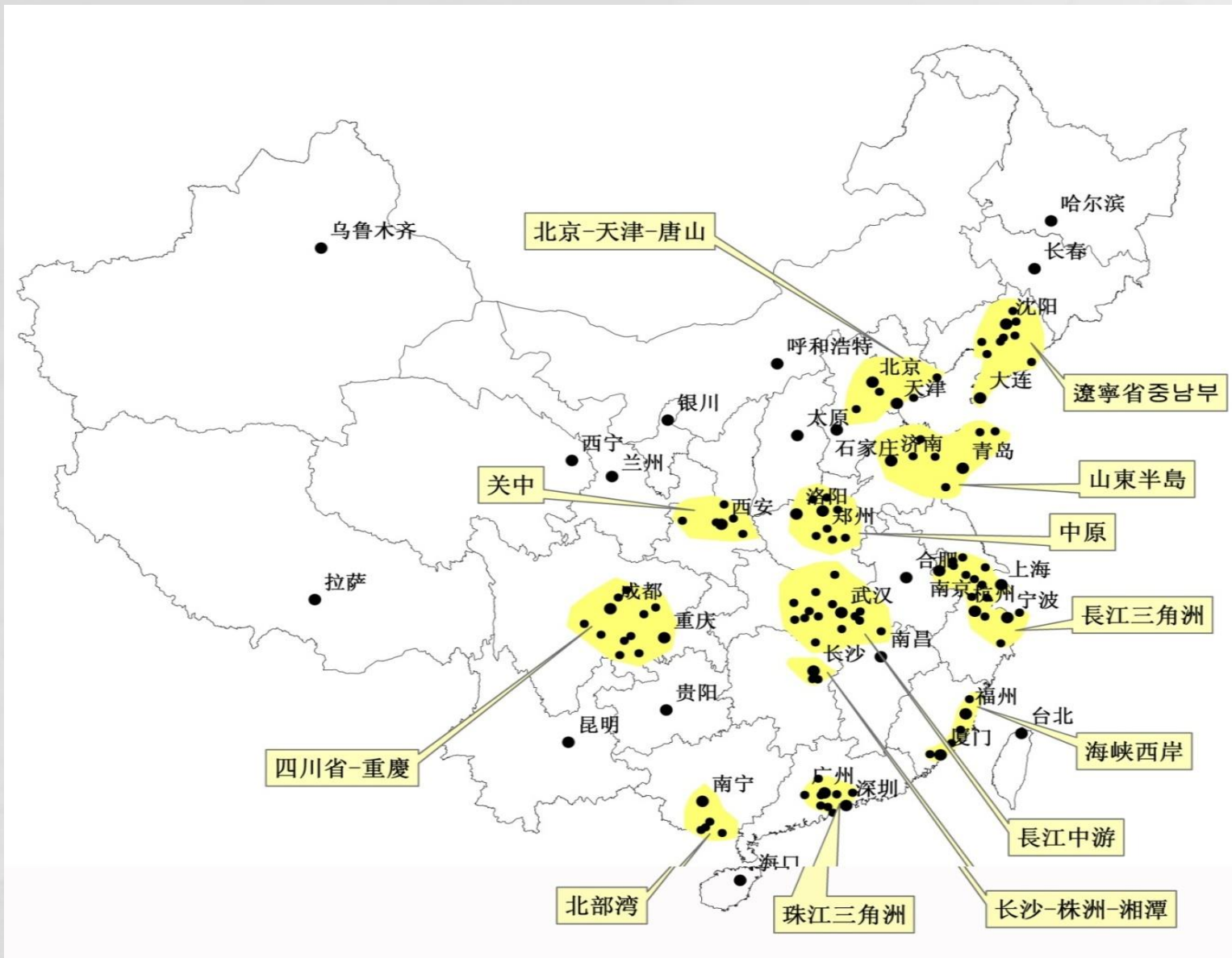
•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발흥 과정

- 1980년대: 선전(深圳), 주하이(珠海), 산터우(汕頭) 경제 특구와 광저우를 중심으로 하는 주강삼각주지구에서 경제 발흥 시작
- 1990년대: 상하이 푸둥신구 개발을 시작으로, 상하이를 중심으로 저장성(浙江省)과 장쑤성 남부(苏南)지구로 구성된 장강삼각주지구의 경제발전 본격화
- 2000년대: 동부연해지구내 남북간 격차 문제 대두 → 지역발전정책 중점이 북쪽으로 이동 → 징진지(京津冀: 北京-天津-河北) 지구와 산둥성과 랴오닝성을 포함하는 환보하이(渤海)지구의 경제발전속도가 주강삼각주지구와 장강삼각주지구 보다 빠르게 진행
 - 2008. 3: 국무원이 텐진(天津)시가 제출한 ‘빈하이신구(滨海新区)종합연계개혁시험방안’ 비준

중국의 국토발전축



중국의 주요 도시군(城市群)



- 최근에는 중국정부가 경제정책기조를 ‘신상태’로 전환
 - 양적 성장을 통해 축적해 온 자본과 외환보유량을 바탕으로 ‘해외진출(走出去)’을 통한 국내의 과잉생산 해결방안 모색·추진
 - ‘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(一帶一路)’ 건설 → ‘아시아 기초시설투자은행(AIIB)’ 조직-운영
 -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에 해외경제특구 개발

중국 육상/해상 실크로드 전략(一帶一路)



‘환보하이지구’의 범위와 개황

- 행정구역 구분에 기초해, ‘환보하이 (環渤海) 지구’의 범위를 베이징, 톈진, 허베이성, 즉 징진지(京津冀)지구, 그리고 랴오닝성(遼寧省), 산둥성의 2개 직할시와 3개 성(省)으로 확정 ← 전국 인구의 17.8%, 국토면적의 5.4%
 - 베이징, 톈진 2개 직할시와 5개 지대 포함
 - 톈진빈하이신구(滨海新区)
 - 랴오닝성 연해경제지대
 - 산둥성 황하삼각주 → 산둥반도 남색경제구
 - 허베이 차오펬이디엔신구(曹妃甸新区)
 - 허베이 보하이신구(渤海新区)
 - 주요 중심도시: 베이징, 톈진, 선양(沈阳), 따리엔(大连), 지난(济南), 칭다오(青岛), 바오딩(保定), 스자좡(石家庄) 등

- 최근에 중국정부가 ‘징진지(京津冀)’ 일체화 발전 전략을 중점 추진하면서, 베이징-톈진-허베이를 포함한 ‘환보하이(環渤海)지구’ 성장속도가 장강삼각주와珠江삼각주 지구를 추월
 - 중국의 연해지구 개발·개방 정책의 무게중심이 남에서 북으로 이전하면서 혁신과 기술창신(技術創新) 가속화와 함께 이 지구의 발전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
 - 국가발전전략에 포함된 톈진빈하이신구와 랴오닝성 연해경제지대, 산둥성 황하삼각주, 그리고 허베이성 보하이(渤海)신구와 차오페이티엔(曹妃甸)신구 포함.
 - 이들 5개 경제구의 면적 합계는 총 9만^{km²}로 광둥성 선전(深圳)경제특구의 45배, 상하이 푸둥신구의 74배 규모(<표 2>)

<표 2> 중국 3대 경제권별 경제구 현황(2009)

| 경제권 | 경제구 | 면적(km ² , %) | 경제총량 (억위안, %) | 산출밀도 (억원/km ²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환보하이(環渤海)지구 | 톈진(天津) 빈해신구 | 2270(19.0) | 3810.7(50.7) | 1.68 |
| | 랴오닝(辽宁) 연해경제지대 | 56500(38.2) | 7835.3(52.0) | 0.14 |
| | 산둥 황하삼각주 | 26500(16.9) | 5014.8(15.3) | 0.19 |
| | 허베이 차오페이디엔(曹妃甸) 신구 | 1944(1.0) | 650(3.8) | 0.33 |
| | 허베이 보하이(渤海) 신구 | 2375(1.3) | 240(1.4) | 0.10 |
| 주강삼각주지구 | 선전(深圳) 경제특구 | 1992(100.0) | 8201.3 (100.0) | 4.12 |
| 장강삼각주지구 | 상하이 푸동(浦东) | 1210(19.1) | 4001(26.6) | 3.31 |
| | 쑤저우(苏州) 공업원구 | 288(3.4) | 1120(14.5) | 3.89 |

주: ()는 소속 성, 시내 점유비중, 출처: 2011 中国城市统计年鉴, 14쪽

환보하이지구의 발전전망과 과제

- 경제의 세계화와 ‘환황해경제권’의 발전이 진행되면서, 서해안축의 중심에 위치한 충남에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
 - 충남경제가 중국을 중심으로 생성되고 있는 외부의 발전 동력을 어떻게 견인, 흡수할 것인가?
 - 변화와 발전동력의 진원지인 중국의 발전동향과 영향을 올바르게 파악, 분석하고, 국민경제의 틀을 뛰어넘는 능동적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
 - ‘13차5개년계획(十三五規劃: 2016 ~ 2020)’에서는 ‘징진지’ 협동발전을 3대 지역발전전략중 하나로 제시
 - 2011년, ‘산동반도 남색경제구발전계획(蓝色经济区发展规划)’을 국가발전전략으로 확정하고, 해양경제 확대 관련 중점사업들 활발히 추진중

3. 충남의 현실과 과제

- 대내적으로는 수도권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 감소, 대외적으로는 중국경제정책 기조의 ‘신상태(新常态)’로 전환에 따른 경제구조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음
 - 충남경제의 기본동력은 수도권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구축된 제조업과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부품 및 중간재의 對중국 수출 특수 혜택이었음
 - 2015년 충남의 對중국 수출 비중이 43.9%이고 타이완과 홍콩지구까지 포함하면 3/5 비중을 점한다. 그러나, 최근 중국경제가 ‘신상태(新常态, New Normal) 기조로 전변(转变)하면서 對중국 중간재 수출 특수효과 급감-소멸
 - 2001~2009 : 9.0% → 2010~2012: 3.8% → 2014년 1/4: 2.9%, 2/4: 2.5%, 3/4: -8.7%, 4/4: -14.9% → 2015년 1/4: -8.1%
 - 충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은 이미 중국에 추월 당했고, 제철도 악화 추세임
 - 전자, 반도체와 디스플레이, 자동차 산업의 비교우위도 예상보다 빠르게 소멸될 것...

- 2015년 방한 요우커(游客)중 충남지역 방문자 비중 0.7%(대전, 충북, 세종 포함한 충청권 전체 1.3%)
 - 2007년 107만(16.6%)→ 2011년 222만(22.7%)→ 2014년 613만(43.1%)→ 2015년 547만명(메르스 영향)
 - 중국인 출국 요우커수: 1억 900만명(2014)→ 1억 2천만명(2015)
 - 해외 소비액: 2014년 1,648억 달러(전년대비 28% 상승)→ 2015년 1,940억달러로 예상됨
- 국제 해상운송과 항공교통망이 없음.
 - 서해안축의 중심에 위치하고, 당진, 서산, 태안, 홍성, 보령, 서천 6개 시·군이 중국의 황하이(黃海)로 연결되는 서해바다에 접하고 있지만, 해상운송과 항공교통 기반인 항만과 공항 시설의 수준이 국내 지자체중 가장 취약함

- ‘환황해권’의 지리적 범위를 중국 대륙전체는 물론 일본과 동남아 까지 포괄하는 광역적 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나 하위단계의 세부 전략의 구체성과 실천과제에 대한 체계적 전략 부족 ◀중국의 현황과 주요 정책동향을 충남의 입장과 관점에서 파악, 분석, 반영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 미흡

4. 충남형 對중국전략

• 환황해권 공간범위 설정

- 충남의 대(對)중국 전략 맥락에서, ‘환황해권’의 개념과 공간적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정 → 전략적 타깃지역 선정(설정)
- 충남의 능력과 동원 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’ 관점에서 단계별로 구분, 설정
- 지역 현황 및 주요 정책동향 파악, 분석
 - 환보하이(環渤海)경제권 발전
 - 허베이성과 징진지(京津冀: 베이징-톈진-허베이)
 - 산둥성의 남색경제(藍色經濟) 발전전략
 - ‘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(一帶一路)’ 건설 전략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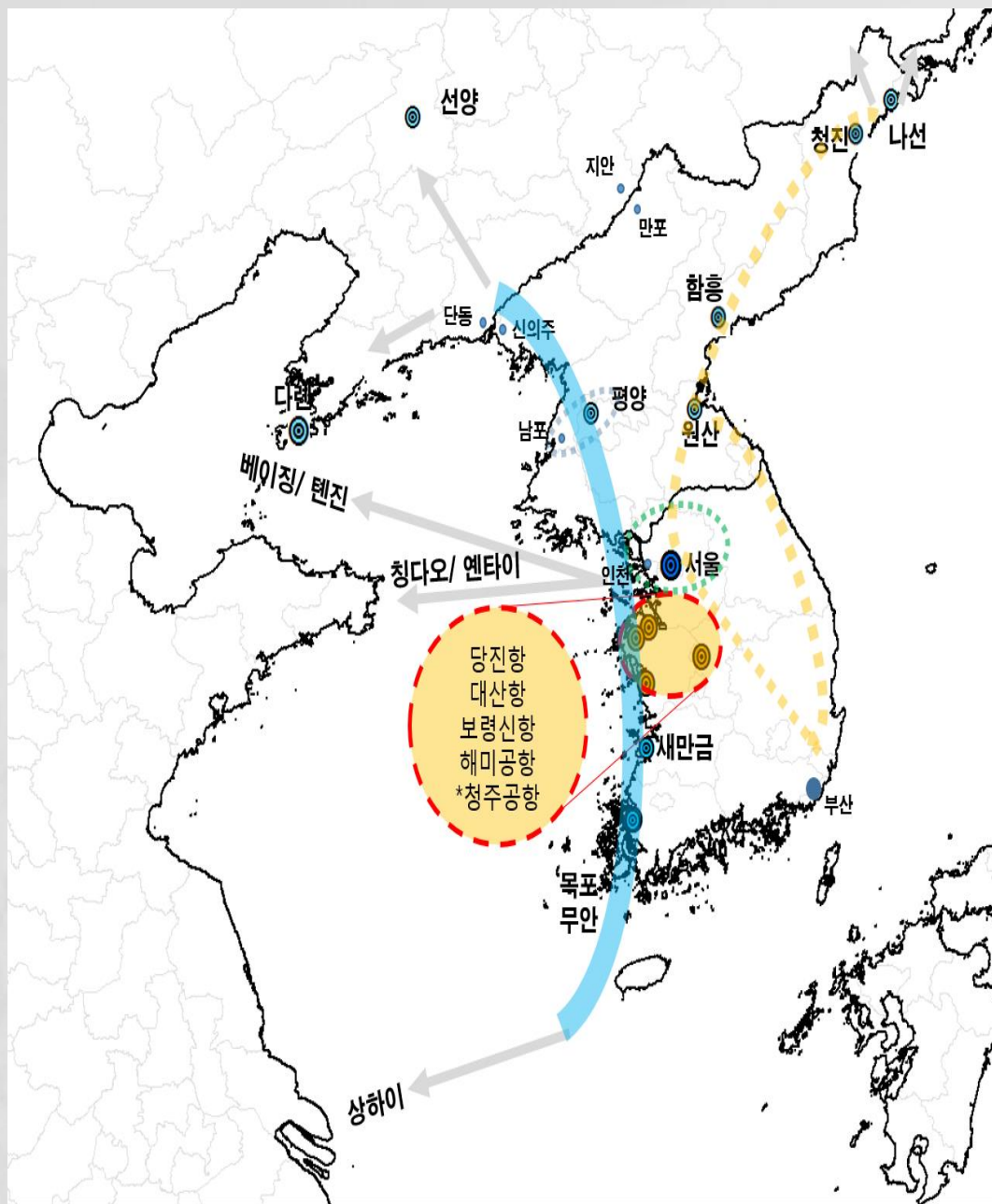




- I 권역: 충남도와 20년 이상 자매결연 관계인 허베이성을 포함하는 징진지(京津冀)지구와 충남도내 15개 시,군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 파트너 시(市),현(縣)이 가장 많은 산동성으로 구성되며, 2015년 총인구 약 2억 990만명, 면적 약 37.5만 km^2 .
 - 참고: 충청남도 면적 0.82만 km^2 , 남한면적 약 10만 km^2 임.
- II-1권역: 랴오닝성(遼寧省)을 포함하는 동북3성지구로 총인구 약 1억 947만명, 면적은 약 80.8만 km^2 .
- II-2권역: 장쑤성(江蘇省)을 포함하는 장강삼각주지구로 총인구 약 2억 2074만명, 면적 35.5만 km^2 .

〈표 3〉권역별 기본현황(2015)

| 구분 | | 1인당 GRDP(달러) | 전국 순위 | 면적(만km ²) | 인구규모 (만명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중국 전국 | | 8026 | | 963.4 | 137,349 | |
| I 권역 (京津冀, 산둥성) | 베이징 | 17064 | 2 | 1.6 | 2171 | 총인구: 2억 990만명 총면적: 37.5만km ² |
| | 톈진 | 17334 | 1 | 1.2 | 1547 | |
| | 허베이성 | 6463 | 20 | 18.9 | 7425 | |
| | 산둥성 | 10302 | 10 | 15.8 | 9847 | |
| II-1권역 (동북3성) | 랴오닝성 | 10520 | 9 | 14.8 | 4382 | 총인구: 1억 947만명 총면적: 80.8만km ² |
| | 지린성 | 8325 | 12 | 18.7 | 2753 | |
| | 헤이룽장성 | 6336 | 21 | 47.3 | 3812 | |
| II-2권역 (장강삼각주) | 상하이 | 16560 | 3 | 0.6 | 2415 | 총인구: 2억 2074만명 총면적: 35.5만km ² |
| | 장쑤성 | 14128 | 4 | 10.7 | 7976 | |
| | 저장성 | 12466 | 5 | 10.2 | 5539 | |
| | 안후이성 | 5779 | 25 | 14.0 | 6144 | |



- 중-북 접경지역에서 랴오닝성 단둥(丹東)-신의주, 지린성(吉林省) 지안(集安)-만포와 투먼(圖們)-나선 통로 등 중-북 간 교역 및 교류를 통한 연결축을 형성·발전
 - 중국의 단둥→ 북한의 신의주-평양-남포축→ 해주→ 개성→ 경기만 북부→ 서울-인천 수도권→ 충남의 당진-서산-홍성-태안-보령-서천 지역→ 새만금지구→ 목포까지 연결하는 ‘한반도 서해안축’ 형성·발전

충남형 대(對)중국 전략-원칙과 방향

- 추상적 담론과 실천과제 구분 추진
 - 아시아의 지중해, 건강, 평화--소통--통일, 성장의 바다
 - 실천과제 및 추진전략➔ 공간-시간 단계 구분
- 중국의 황하이(黃海) 및 보하이(渤海) 연해지구 도시들과 우호협력 교류협작관계를 구축·활성화 하면서, 지역발전동력 창출
 - 충남의 입장에서 ‘선택과 집중’ 원칙 하에, 중국의 황보하이(黃渤海) 연해지구중에서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하고, 주요 현황과 정책동향을 파악➔ 충남의 특성과 능력을 기초로 현안사업과 연결
- 현안과제와 사업들을, 자력추진사업과 국책사업화 대상으로 구분
 - 계획과 내용은 단기, 중기, 장기로 구분하지만, 실천단계에서는 동시 병행추진

- ‘환황해권 시대’ 라는 ‘큰 흐름’ 에 적응하면서, 함께 들어오고 파생되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‘작은 운동’ 들을 현장에서 조직하고 상향식으로 활성화 추진
 - 대기오염과 황보하이(黃渤海) 수질오염, 토지구입 문제 등에 대한 대응정책 수립
 - 중국의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및 녹색성장 지향의 발전 패러다임 구축.
 - 1980년대에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연평균 황사일수는 2.9일이었으나, 2000년대에는 9.8일로 증가

- 대(對)중국전략과 연계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“주민 주체”와 “창출된 이익의 해당지방과 주민 귀속” 최 우선·최대화 원칙 견지 및 제도화
 - 3농혁신,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, 농수산업 6차산업화 등 분야에서 앞서가는 충남의 비교우위와 축적된 경험을 대(對)중국 교역·교류전략에 효과적으로 연결 활용
- 한-중 지방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-중-북 지방차원 삼각협력의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

충남형 對중국 전략방안

-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

- 對중국전략 총괄기획 및 지원 기능조직 확충

- 도(道): 기획조정실 환황해프로젝트팀+경제산업실 중국팀
 - 충남연 중국연구팀: 충청중국포럼(월례), 중국동향과 진단(격월간)

- 교류범위 및 파트너 선정→ 지역관련 현황 및 주요 정책 동향 파악 →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→ 시범선도사업 설계→ 집중지원·성공사례 창출

- 유관기구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→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→ 지역 현안과제와 사회단체 및 기업의 對중국 교류와 내수시장 개척분야와 연결, 확대
 - 선택과 집중 원칙 견지

- 국책사업 발굴과 연계

- 對중국 기초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
 - 충남도와 15개 시·군 對중국 교류네트워크 관리 및 강화
 - 충남도: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성(省), 자치주(延邊조선족 자치주)
 - 15개 시·군: 자매결연 11개, 우호협력 15개 市,縣,區
 - 파트너지역 및 교류단체별 특성 파악과 중점추진 분야 설정
➔ 전략적 재검토, 조정, 확대, 활성화 전략 추진
 - ‘정부 주도 행사참여’ 에서 민간과 기업분야 교류로 확대, 다양화 추진
 - 지방차원 한중 교육 및 교류협력의 ‘新모델’ 창출
 - ‘충청중국포럼’ : 지방차원의 한중교류-학습- 정보 및 경험 교류-네트워크 관리
 - ‘중국동향과 진단’ : 지방 차원의 한중교류협력 관련 정보 정리-축적
 - 중국 아카데미➔ 도와 시·군 순회 개최, 강연·토론

• 시범선도사업 발굴-선정

- 설계-집중지원➔ 성공사례 창출
- 사업 주도권과 수익을 지역과 주민에 귀속 ◀원칙
 - 소규모-상향식-내발적 발전
 - 국책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화 구상 병행 추진
 - 기 추진중인 공무원 해외연수와 해외교류자치단체 공무원 초청사업 등을 정책연수관광부문 교류협력사업과 연계, 확대 추진
 - 3농혁신 및 환경생태 성공사례 체험 및 정책연수관광상품 개발
 - 생태환경체험 및 교육도장(서천), 한중해양교류사 박물관(태안) 등➔ 한-중 학생, 교사, 공무원 기업체 직원 교육연수프로그램과 연결
 - 시·군에서 진행중인 친환경 고품질 농산품 사업, 로컬푸드-지역순환식품-도농상생복합단지-학교급식지원 사업 등

• 중점추진과제

- 한-중 지방간 인프라네트워크 구축-관리-운영
 - ‘충청중국포럼’ 활성화 및 확대: 공무원➔ 사회단체➔ 기업➔ 중국아카데미
- 충남형 對중국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-운영
 - 도립대학 특성화 발전 추진 ➔ 중국-해양-관광분야
 - 중국대학과 합작운영--우수 중국인유학생 유치 추진
 - 충남공무원교육원 정책연수프로그램과 연계운영
 - (가칭)충남중국아카데미 설립-운영

- 충남형 요우커(游客) 유치 및 마케팅 모델 개발
 - ‘요우커(遊客)’에 대한 개인, 가족, 팀별 개별 관광객 대상별 유형화➔ 지역 특성 반영➔ 단계별 대응전략 구분 수립➔ 추진➔ 성공사례
 - 지역내 중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조직관리➔ 충남 관광지 홍보와 장소마케팅과 연결➔ 팸투어 및 효도관광 조직 실시
 - 지역기반 중국전담여행사 합작전립-운영 ◀ 對중국 교류 파트너 중국 지방정부와
- 서울-청주공항-충청권 연계관광루트 개발➔ 관광, 문화융성전략 설계 ➔ 한중교역 및 경험 사업과 연계

- 3농: 충남의 '3농혁신' 성공경험 및 사례를 對중국 정책연수관광상품화 추진
 - 중국정부의 '三農' 관련 주요 관심사는 '사회주의 신농촌' 건설, '농민전업합작사' 활성화, 농업현대화와 선도기업 활성화, 도농(城鄉) 일체화 건설, 농민의료합작 및 복지 확대, 식품안전, 농촌체험관광 등
 - '3농' 혁신 관련경험과 성공사례를 중국 황.보하이 연해지구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및 연결고리로 활용
 - 홍동마을(홍성), 알프스마을(청양), 환경생태마을(서천,태안) 등
 - 여가농업, 농어촌 체험관광사업, 행복마을 만들기,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, 지역순환식품유통구조 구축, 관광두레 조성, 문화생태 탐방로, 농촌체험활동, 어촌관광 활성화 등

感谢!
Thank you!